

욥기 42:6 번역의 문제와 제안

안근조*

1. 욥기 42:6과 욥기의 주제

전통적인 욥 이해는 동방의 의인 욥이 뜻하지 않은 고통을 억울하게 당하나 그 고통을 믿음 가운데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의 관점에서 욥의 최종적인 고백인 욥기 42:6에 대한 기존의 번역은 어울리지 않는다:

על-כן אמאס ונחמתי

על-עפר ואפר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¹⁾

의인이었던 욥이, 더군다나 사탄의 계략으로 무고하게 시련을 당한 욥이 어떤 죄 때문에 회개하는가? 물론 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한 대목이 있기는 하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13:18);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27:6). 이에 대하여 친구들은 욥 자신의 의로움 주장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대 의롭겠느냐”(15:14);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22:23). 만일 친구들의 주장이 옳다면 욥의 회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정작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친 폭풍우 언설 가운데(욥 38-41장)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없다. 더군다나 결론부에서는 욥을 친구들보다 더 의롭게 여기신다(42:7-8).

따라서 욥기의 주제를 42:6의 기존의 번역에 근거해 “회개”라고 보기에는 전체 내용과의 관련성에서 일관성이 없다. 욥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서 단

* 호서대학교 교수, 구약학.

1)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성경 인용문은 『성경전서개역개정판』을 따른다.

절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율법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도 없다. 하나님이 사탄과 더불어 시작한 시련의 피해자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개를 요구하실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38-41장에 이르는 폭풍우 신언설에 있어서도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²⁾ 창조세계의 질서와 신비만을 이야기하신다.

욥기 42:6은 욥의 최종 응답으로서 욥기의 중심 주제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의 대화의 초점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본문이다.³⁾ 이에 42:6의 번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2. 욥기 42:6 번역의 문제

본문에 대한 번역상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가 대두되었다. 첫째, “그러므로(כֵּן-לָכֵן)”로 시작하는 6절은 맥락상 2절부터 시작된 욥의 응답의 결론부이다. 본인 자신을 부정하는 회개의 의미와 비교하면 앞선 2-5절에 나타난 욥의 고백의 분위기는 오히려 긍정적이다.⁴⁾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만약 2-3절까지의 고백이 바로 6절과 연결된다면 회개의 의미는 논리적 귀결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4-5절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한 욥의 적극

2) 만약에 회개를 원하셨다면 첫 번째 신언설 후의 욥의 첫 번째 응답에서 말씀을 그쳤을 것이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40:4-5) 그러나 하나님의 폭풍우 신언설은 이 첫 번째 응답 이후에도 두 번째 신언설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3) Samuel E. Balentine, *Job* (Macon: Smyth & Helwys, 2006), 693; David J. A. Clines, *Job 38-42* (Nashville: Thomas Nelson, 2011), 1218.

4) Dale Patrick, “The Translation of Job 42:6”, *VT* 26 (1976), 370; L. J. Kaplan, “Maimonides, Dale Patrick, and Job 42:6”, *VT* 28 (1978), 356-357.

적 깨달음의 고백이다. 기존의 번역처럼 바로 뒤이어 회개의 문구가 따라오는 것은 문맥상 어색하다.

둘째, 6절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중 첫 번째 동사인 **אָמַנָּה**(I refuse, I retract)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전통적 해결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목적어 없이 그대로 재귀적 용법으로 번역하는 일이다. 즉, 『개역개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또는 영문성경 NIV에서처럼 재귀적 용법으로 “I despise myself”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אָמַנָּה** 동사의 칼형은 구약성서에서 단 네 개의 본문(욥 7:16; 34:33; 36:5; 42:6)을 제외하고는 66번이나 목적어를 항상 동반한다.⁵⁾ 생략된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문맥에서 발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⁶⁾

셋째, “회개하나이다”로 번역된 **וַיִּחַתְתִּי**가 기존의 대부분의 성경번역본들이 받아들이는 니팔형의 회개의 의미인지 아니면 몇몇 번역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피엘형의 위로의 의미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⁷⁾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논의는 **נָחַם** 동사가 **עַל**과 함께 숙어적 용법으로 쓰였는가 아니면 **עַל**은 동사와 관련 없이 단순한 위치를 가리키는 전치사로 쓰였는가를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עַל נָחַם**이 숙어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본문은 회개의 의미보다는 “마음을 바꾸다”의 전혀 새로운 의미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마소라 학자들은 MT의 아트나⁹⁾ 띄어쓰기 표시를 **נָחַם עַל** 사이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쉽게 숙어적 용법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의 결정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¹⁰⁾

넷째, “티끌과 재”로 번역된 **עָפָר וָאֵפֶר**의 문제이다. “티끌과 재”로 단순하게 번역하는 일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으나 문제는 이 두 단어가 과연 **עַל נָחַם**이라는 숙어적 동사구의 목적어로 취급을 해야 할지 아니면 **עַל** 전치사의 목적어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이다. 또한 어떤 경우이든 시간애 “티끌과 재”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것 자체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¹¹⁾ 실제로 구약성서 내

5)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BL* 105 (1986), 214.

6) 예를 들면, 『공동번역』은 42:3에서 욥이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한 사실을 목적으로 받아들여 “그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로, 『표준새번역』은 이전에 욥이 언급한 모든 말과 주장을 목적으로 두고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로 번역한다.

7) Charles Muenchow, “Dust and Dirt in Job 42:6”, *JBL* 108 (1989), 597.

8)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215-216.

9) 히브리어 MT 본문에서 하나의 절을 크게 전반절과 후반절로 구분하는 띄어쓰기 표시로서, 로 표기된다.

10) Charles Muenchow, 610;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성경원문연구』 26 (2010), 35.

11) 그루버에 의하면 본래 원시 히브리어에서는 **עָפָר**만이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아카드어를 거쳐 **אֵפֶר** 형태가 첨가된 것 자체에 의문을 품고 다른 의미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M.

에서는 본문을 포함하여 단 세 군데에서만 עֲפָר וְאֶפֶר이 함께 쓰인다(창 18:27; 욥 30:19; 42:6).¹²⁾ “티끌과 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욥의 최후의 응답은 그 본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먼저, 욥의 두 번째 응답(42:2-6)의 맥락에서 욥기 42:6의 회개 고백과 앞선 절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이다. 2-3절과 회개 고백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나 4절의 신-인 대화(divine-human dialogue) 설정과 5절의 눈으로 보는 신앙의 깨달음은 회개 고백과는 관계성이 멀다. 특히 4절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는 오히려 도발적이다.

따라서, 몇몇 주석가들은 4절을 인용문으로 보면서 문제를 우회하려 한다. 즉, 욥이 38:3b와 40:7b의 하나님의 명령문을 인용했다는 것이다.¹³⁾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וְאֶפֶר וְאֶפֶר (“오 들으소서 저는...”)로 시작하는 구절은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용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¹⁴⁾ 오히려 욥이 앞서 13:22에서 이야기한 자신의 말에 대한 인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¹⁵⁾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은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근본적으로, 바로 다음의 5절 욥의 관점의 변화와 깨달음의 상황이 선포되고 있는데 4절을 여전히 하나님의 도전적이고 풍자적인 물음으로 이해하는

Gruber, *Aspects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0), 457-458.

12) 정경 이외에 외경에서는 시락에서 단 1회 나온다: 40:3

13) Robert Gordis, *The Book of Job: Commentary, New Translation, and Special Studies*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1978), 492;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1985), 576;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628.

14) Edwin M.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a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372.

15) 김상기,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37.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4절까지 욱의 한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물음으로 이해하여 6절의 회개의 고백과 연결시킬 수 있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5절의 깨달음과 친밀함의 선포를 설명할 수 없다.

정작 욱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3a절이다. 욱은 이곳에서 앞선 38:2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¹⁶⁾ 신언설의 가장 근본적 물음을 자신의 응답에 인용함으로써 욱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였다.¹⁷⁾ 이로써 욱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했노라 수궁할 수 있었고 (42:3b-c),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신-인 대화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이다(4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5절의 듣는 신앙으로부터 보는 신앙으로의 깨달음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깨달음의 최종적인 단계가 예상되는 6절에서 도리어 급작스러운 회개의 분위기는 번역비평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본문 번역의 문제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אָמַאס)의 אָמַאס(마아스) 동사의 목적어를 찾는 일이다. 이미 ‘마아스’ 동사는 욱의 탄식 부분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소개된 바 있다(7:16a):

מָאסְתִּי לֹא-לְעֵלָם אַחִיָּה

나의 생명을 거부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역)

이곳에서도 ‘마아스’ 동사의 목적어는 없다. 그래서 문맥에 비추어 “자신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42:6에서도 “무엇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있는지 맥락상 목적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타당한 후보자는 3b절에 나타나 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즉, 이전에 자신이 내뱉은 지혜 없는 말들이 이곳에서 목적어로 적합하리라 본다. 지금 욱은 하나님의 세상섭리에 대한 그의 이전의 의심과 불평들을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a절을 다음과 같이 사역하였다:

그러므로 제 잘못된 말을¹⁸⁾ 거두어들이고

16) 38:2과 42:3a를 비교하라! 기본적으로 동사 하나만(אָמַאס에서 אָמַאס)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מִי זֶה מוֹחֵשֶׁת עֵצָה בְּמִלִּין בְּלִי-דַעַת

מִי זֶה מוֹעֵלִים עֵצָה בְּלִי דַעַת

실제로, 영문성경 NIV와 NRSV는 모두 다 42:3a절에 하나님 말씀의 인용으로 작은 따옴표를 표시하고 있다.

17)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Nashville: Abingdon, 1996), 628.

세 번째 문제는 본문 번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회개하나이다”로 번역된 וְנִחַמְתִּי의 번역 문제이다. 앞의 문제 제기에서 언급한 바, נָחַם(나감) 동사를 피엘형 또는 니팔형으로 처리해야 할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왜냐하면 נָחַם 동사의 니팔형과 피엘형은 공히 같은 모음을 지니기 때문이다.¹⁹⁾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נָחַם 동사의 니팔형으로 보고 “뉘우치다” 또는 “회개하다”로 번역했다. 왜냐하면, 피엘형 의미로 “위로하다”라고 번역하기에는 바로 앞에 나오는 동사 “거두어들인다”는 맥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²⁰⁾ 지금 욥은 “거두어 들이고” “뉘우치는” 상황에 있지, “위로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6b절과 더불어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결론으로 부각되어 왔다.

문제는 패트릭에 의하여 נָחַם 니팔형 동사 다음에 עָל(알) 전치사가 속어적으로 쓰일 경우 본문의 의미가 다양화 될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불거졌다.²¹⁾ 즉, 마소라 학자들이 의도한 대로 아트나 띄어쓰기로 읽기보다 עָל נָחַם을 하나로 읽으려 할 때 본문은 “עָל” 다음에 나오는 그 무엇, 즉 “그것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로 욥의 응답이 마무리 될 수도 있다. 기존의 회개의 결론과는 판이하다.

물론, עָל נָחַם의 문자적 뜻은 “~에 대해 위로받다”이다. 예를 들면, 사무엘 하 13:39; 예레미야 31:15; 또는 에스겔 14:22 등은 עָל 이하로 말미암아 위로 받게 됨을 표현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이로부터 파생되어 이전에 행한 말이나 일을 돌이키는 의미로서의 용례가 구약성서 내에 자주 등장한다: 출 32:12, 14; 삼하 24:16; 렘 8:6; 18:8, 10; 욥 3:10 등.²³⁾ 그렇다면 모로우가 지적한 바,

18) 한글 『공동번역』의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마아스’의 목적어를 “잘못된 말”로 잘 지적했지만 마아스 동사 자체의 의미를 “깨닫고”로 번역하는 것은 지나친 의역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전 태도에 대한 교정의 뜻이 분명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글 『표준새번역』의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들이고”에서는 ‘마아스’ 동사의 번역은 적절하나 그 목적어로서 “제 주장”이라고 표현한 점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욥의 주장이라 할 때에는 구체적인 주장의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딱히 반인공응보의 주장인지,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대하는 주장인지 또는 그 외의 욥이 언급한 어떤 다른 주장들인지 명백하지 않다. “제 주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말들을 포괄하는 “제 잘못된 말”이 적합하다고 본다.

19) נָחַם 동사는 니팔형과 피엘형 공히 같은 모음을 가지고 있다: 김정우 역, 『주용-무라오까 성서히브리어 문법』 (서울: 기혼, 2012), 197, 201.

20)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215.

21) Dale Patrick, “The Translation of Job 42:6”, 370.

22) כִּי־נִחַם עַל־אֲמֹנֵן כִּי־נָחַם (삼하 13:39)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음이라

וְנִחַמְתִּם עַל־הַרְעָה אֲשֶׁר־הִבֹּאתִי עַל־יְרוּשָׁלַם (겔 14:22)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 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욥기 42:6은 두 경우로 번역이 가능하다.²⁴⁾ 즉, 문자적 뜻으로, “티끌과 재에 대하여 위로받다” 또는 파생된 의미로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²⁵⁾로 각각 번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제기했던 네 번째 번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곧 “티끌과 재”로 번역된 **אפר ואפל**(‘**아팔 바에펠**’)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회개의 번역에서 “티끌과 재”는 욥의 물리적 위치를 가리켰다. 즉 2:8에서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ישב בתוך האפר**)” 몸을 굽고 있었고 이후 줄곧 티끌과 재 가운데 탄식하고 불평하다가 급기야 그 위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 회개의 맥락에서 **אפר** 또는 **עפר**이 각각은 쓰이지만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창세기 18:27을 제외하고는 욥기에서 만 두 차례 즉, 30:19과 42:6에서 발견된다.

욥기 42:6의 ‘**아팔 바에펠**’의 의미를 찾기 위해 먼저 창세기 18:27과 욥기 30:19를 살펴보면 양자가 공통점이 있다. 두 경우 다 인간의 미천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

ויען אברהם ויאמר הנה־נא הואלתי לדבר אל־אדני ואנכי עפר ואפר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הרני לחמר ואתמשל כעפר ואפר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자신을 가리켜 “티끌과 재”와 같다고 비유한다. 두 본문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자신의 미천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문인 42:6 또한 욥 자신에 대한 비유로 읽을 수 있다. 미천한 존재로서의 인간인 욥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제시했던 **על נחם** 번역의 두 경우에 각각 미천한 인간 존재로서의 욥 자신의 표현인 “티끌과 재”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이한 번역을 얻게 된다.

23) 예를 들면, ונחמתי על־הרעה אשר חשבתי לעשות לו, (렘 18:8)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ויןחם האלהים על־הרעה אשר־דבר לעשות־להם ולא עשה (은 3:10)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24)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216.

25) Dale Patrick, “The Translation of Job 42:6”, 370; William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215-216; TDOT vol. IX, 349.

문자적: “티끌과 재로 인하여 위로받다”

파생적: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다”

לֵב עָנַן을 본래적 의미로 번역할 때의 의미는 욥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이 미천한 존재임에 대하여 위로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과 이치를 고백하고(2-3절), 신-인 대화의 지평에서 새로운 하나님 이해(눈으로 보는)를 선포했던 욥이(4-5절), 6절에 이르러 자신의 미천한 정체성에 대하여 위로받고 있거나(be consoled for) 또는 뉘우치고 있는(repent of) 모습은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다.

반면에, לֵב עָנַן을 파생적으로 번역할 때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문 이해의 빛을 던져준다. 즉, 이제껏 욥이 자신을 가리켜 진흙 가운데 던져진 “티끌과 재”와 같은 미천한 존재로 여겨왔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 보잘것없는 인간 존재 욥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사실이 조명된다. 마치 창세기 18:27에서 티끌과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세상 심판을 논의하게 되듯이 욥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로서의 본인의 자기 이해를 갱신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고백하고 있다.

4. 욥기 42:6 번역의 제안

이상의 논의의 결과, 욥기 4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제 잘못된 말을 거두어 들이고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결론은 회개가 아니라 계몽이다. 침묵으로 일관한 욥의 첫 번째 응답과는 달리(40:4-5)²⁶⁾ 두 번째 욥의 응답은 폭풍우 신언설을 통한 욥의 깨달음을 단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2-3절). 둘째,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경지에 서게 되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창조세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

26)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었다(4-5절).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본문 6절에 이르러 욥 자신에 대한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다. 무질서의 현실 앞에 선 미천한 존재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가운데 베헌과 리위야단보다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발견이 바로 “티끌과 재에 관해 바뀐” 새로운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다.

욥은 더 이상 전통적 신앙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창조질서와 창조자의 섭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창조세계의 대리자로 새롭게 서게 된다.

(투고 일자: 2012. 10. 9.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2.)